



Alexander Vershbow

## 위조서류, 비자 면제 협정에 걸림돌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방문을 희망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자 신청자에게 접근하여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가 어렵다며, 서류를 위조하라고 권하는 비자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실제로 미국 비자 신청자 중 96% 이상이 비자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위조서류로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영원히 미국 방문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위조서류를 사용하지 마시고 본인의 서류로 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브로커들을 통해서 위조서류를 준비하면 미국 비자 발급 가능성은 희박해지며,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 국가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최대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입니다. 본인의 서류로 비자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저희는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DO NOT LET FRAUD DELAY THE VISA WAIVER PROGRAM

*From Ambassador Vershbow*

Thanks for visiting our website. We are happy that you want to visit the United States, but we want you to be careful. Visa brokers might try to fool you and tell you how hard it is to get a U.S. visa so that they can sell you fake documents. Do not let these people make your application fraudulent. The truth is that we approve more than 96% of all applicants, so you should not believe the visa brokers and their scare tactics.

If you try to deceive my staff using fake documents, you may be barred from enter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rest of your life. If you think there is even a small chance somebody might have given you fake documents, throw them away and apply with your genuine documents.

Working with fraudsters will hurt your chances of getting a U.S. visa, and these fraudsters are hurting Korea's chances of entering our Visa Waiver Program. We want as many Koreans as possible to visit the United States. Be honest so my staff can help you. Together, we can help Korea move toward joining the U.S. Visa Waiver Program.